

# '동(洞)' 중심 복지공동체 만든다

### 전주시·서울시·부산시, 협업 간담회 동네복지사업 발전 위한 정책 추진키로

전주시와 서울시, 부산시가 주민 주도의 복지체계인 동네복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4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동 주민센터와 주민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온 서울시와 부산시 관계자 등 10여명과 '동 중심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지자체별로 추진해온 동 중심 복지정책과 관련 운영사항, 협업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주시와 서울시, 부산시 등 세 도시의 동네복지 사업에 대한 관계자의 설명을 통해 각 지자체의 사업 공유가 이뤄졌다. 또, 향후 복지공동체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 및 업무협약 추진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황금룡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담당자는 지난 서울시에서 추진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찾동 사업)의 2년간의 성과를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는 서울시 24개 구 342개동에 찾동사업을 확대할 계획

임을 설명했다.

황 단장은 특히 서울시 찾동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수 감소(170명→115명) △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현장방문 증가(54,846회→132,210회, 240% 증가) △공무원과 주민의 활발한 접촉을 통한 빈곤위기가정 발굴 등을 꼽았다.

이어, 부산시가 동 중심 복지허브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추진해온 '다복동'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부산시는 다복동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나눔냉장고 운영 △맑은물 나눔사업 △희망나눔사업 △새지붕 나눔사업을 실행해나가고 있으며, 내년까지 국가사업인 행정복지센터와 다복동 사업을 통합해 동 중심 복지공동체를 모든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주시도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2015년 10월부터 운영해온 동네복지 시범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전주시는 4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동 주민센터와 주민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온 서울시와 부산시 관계자 등 10여명과 '동 중심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지난해 동네복지 6개 시범동에서 추진된 민발찬지원사업과 사랑이 꽃피는 냉장고, 사랑나눔 공간 등 29개 특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또, 동네복지 사업을 통해 연간 555가구를 직접 방문해 돌보고, 시범동의 복지민원해결 건수가 기존의 2.5배에 달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소개했다.

시는 올해부터는 전주만의 동네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정책인 동

복지허브와 사업과 성공적으로 연계해 '사람 중심, 전주형 복지공동체'를 20개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인기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람의 도시, 전주의 동네복지 사업과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두 도시와의 업무 협업과 교류를 통해 향후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봄꽃 개화기 가볼만한 곳 10선 선정

## 향긋한 꽃내음 지천에 가득

전주시가 봄나들이하기 좋은 4월을 맞아 봄꽃 개화기 가볼만한 곳 10선을 선정·발표했다.

가볼만한 곳으로 선정된 곳은 △정혜사 입구 △완산동 투구봉 철쭉동산 △전주대학교 캠퍼스 벚꽃길 △덕진구청 앞 벚꽃길 △동산동 한내로 벚꽃길 △이중천 벚꽃길 △전주천 벚꽃길 △전북대학교 상대·농대 벚꽃길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 △전주 원동 배꽃이다.

동산동 한내로 벚꽃길(덕진구 한내로)은 전주철교에서 만경강제방 길까지 한내로 3.75km 구간으로, 왕벚나무 터널을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이다. 또, 이중천 벚꽃길(우아동 이중천 일대)은 이중천 하류방향으로 천변에 식재된 벚나무가 장관을 이뤄 인근 주민들의 산책코스로 사랑받고 있다. 전주천 벚꽃길(완산구 전주천 일대)은 전주천 상류에서 하카지구 천변까지 이어져 있는 천변 벚꽃길로 드라이브 또는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다.

### 정혜사 입구·전주대 캠퍼스 덕진구청 앞·동산동 한내로 이중천·전북대 상대 등

먼저, 정혜사 입구(완산구 외월봉 1길 36)는 4월 중순 개화한 산벚꽃이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풍경을 느낄 수 있는 봄철 명소로 꼽힌다.

또한, 연산홍과 자산홍, 철쭉 등 1,500여 그루의 수목이 식재된 완산동 투구봉 철쭉동산(완산구 곤지산길 일대)는 가족과 연인은 물론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즐겨 찾는 피크닉 장소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

만경강과 전주천, 이중천 등 물길을 따라 장관을 이룬 벚꽃나무 군락들도 봄철 꼭 가봐야 할 산책·드라이브 코스로 선정됐다. /김민근 기자

젊음이 넘치는 대학 캠퍼스도 흠날리는 벚꽃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전북대학교 상대·농대 벚꽃길(덕진구 백제대로 567)은 해마다 4월이면 전주시민들이 즐겨 찾는 야외 나들이 장소로 손꼽히며, 전주대학교 캠퍼스 벚꽃길(완산구 천장로 303)도 재학생과 인근 시민들만 알고 즐긴다는 벚꽃 산책길이자 숨겨진 데이트코스다.

이밖에, 도심 한복판에서 하얀 벚꽃들을 만날 수 있는 덕진구청 앞 벚꽃길(덕진구 벚꽃로 55)과 각종 식물과 꽃들을 만날 수 있는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덕진구 반영로 462-45), 벚꽃이 지고 난 빈 자리를 하얀 배꽃과 연분홍 복숭아꽃으로 채우는 전주 원동마을 배꽃도 봄꽃 개화기 가볼만한 곳 10선에 포함됐다. /김민근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 주제 소통간담회

전북지방경찰청은 4일 이철성 경찰청장의 주제로 현장 경찰관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철성 청장은 치안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진 현장활동 토크 시간에는 300여명의 직원들이 작성한 경찰청장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의 목표와 방향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데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 모색 주차난 해소

### 전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 추진

전주시에서는 주택이 이면도로 및 서부신시가지 등 교통혼잡지역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불법주차차 단속 유예시간 변경, 자전거교통수술대 운영, 공영주차장 개설 및 홍보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료주차장 사용에 대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감과 익숙하지 않은 운전습관 등으로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의 피해가 심해 기초성향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한 '전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거주자 전용 주차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희망하

는 지역주민에게 월 2~3만원의 주차요금을 받고 주민에게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의 주차권의 도모하여 불법주차를 억제하고 긴급차량차(소방차, 앰블런스 등) 통행로를 확보해 주택가 재해·재난 등 유사시 긴급구조 활동에 대비하고, 또한 서부신시가지 등 교통혼잡지역의 교통난 해소대책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주차요금 감면은 공영주차장이 운영이 활성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할.

거주자 전용 주차장은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

에게 우선. 다만, 주간 이용대상자는 주변 주민(상가포함) 및 직장에 상주하고 있는 자로 하고, 주차요금은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하며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희망지역 지역주민 및 상인회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전주시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또한 수도권(수원, 성남, 과천시) 도시를 벤치마킹해 조례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 전북소방본부, 전통시장 화재예방대책 총력

전북도소방본부가 최근 타지역 전통시장에서 잇달아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고 도내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방본부는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으로 도내 전통시장 64개소에 대해 화

재취약요인, 연소확대요인, 관리이력 및 소방활동계획 등을 바탕으로 특별관리카드를 작성했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은 화재발견이 취약한 심야시간을 1일 3회 이상 화기단속 및 화재위해요소 제거를 진행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건물의 노후, 섬유 등 가연성 물질의 밀집도가 높아 대형화재 우려가 있으며, 가판대 설치 등 통로협소로 유사시 인명대피 및 소방활동 장애가 있으니 시장상인 등 관계자의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취약요인 개선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 내연녀 폭행 수사기밀 유출 경찰관 불구속 기소

자신의 아이를 낳은 중국인 내연녀를 폭행하고 과거 수배사실도 알리며 도피를 도운 전직 경찰관이 불구속 기소로 법정에서 서게됐다.

전주시검 형사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범인은닉 혐의로 전직 경찰관 박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수사용 휴대단말기를 이용해 내연녀 A(22)씨가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를 도피시키기 위해 동료 경찰관 명의로 빌린 오피스텔에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부남이던 박씨는 2013년 10월 전북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에서 근무하던 당시 여학 연수생이던 A씨의 사기

피해사건을 맡으며 불륜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5년 1월에 낳은 아들을 효직에 올려달라고 하니 박씨가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박씨는 "몇 차례 때린 것은 맞지만 내 아들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친자감식 결과, A씨의 아들과 박씨의 유전자 정보는 99.999%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A씨가 SNS에 글을 올리며 사건이 불거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내연녀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박씨를 파면했다.

검찰은 또 중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6400만원 상당의 취업 사기 행각을 벌인 A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